

나주시 치매 극복 '100세 안심경로당' 성과

마을 경로당 180곳 지정 운영 '100세 교실' 인지 증진 수업 주민 1820명 예방·관리 도움

나주시가 민선 8기 '치매통합돌봄' 정책의 하나로 '100세 안심경로당' 180곳을 운영하며 주민 1820명의 치매 예방을 도왔다.

나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나주형 치매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 180곳의 마을 경로당을 '100세 안심경로당'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주민들의 선제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치매 환자들이 물리적·심리적으로 고립되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거주하는 마을에서 치매를 극복하고 이웃과 어울려 사는 데 초점을 뒀다.

안심경로당에서는 인지 증진을 위한 '너두(頭) 나두(頭) 100세 교실'을 진행했다.

노인 돌봄과 복지 분야 자격증을 지난 '100세 돌봄 관리사'가 매주 경로당을 찾아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인지 증진 수업을 펼쳤다.

관리사들은 매달 1회 치매 환자 가정을 찾아 대상자 징후와 안부를 살피며 촘촘한 치매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인지 증진 프로그램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치매 고위험군 1500명과 치매 환자 320명 등 주

민 1820명의 인지 증진을 도왔다.

참가자들은 치매 예방 운동과 교재를 활용해 인지 훈련을 하고, 회상 치료, 인지 음악·미술, 정서·건강지원을 받았다.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도 진행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안심경로당에 참여한 1820명을 대상으로 참가 전후 인지 선별검사, 노인 우울척도·주관적 기억감퇴 평가 등을 했다.

참여자 인지선별검사 수치는 평균 13에서 15로 1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우울척도의 경우 평균 4에서 2로 50% 감소했으며, 기억력 감퇴 수치 또한 평균 4에서 2로 절반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검증됐다.

설문조사 한 결과 참여자의 97.2%가 만족을 표시했으며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320명을 대상으로 조호물품,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했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치매 환자를 돌봤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00세 안심경로당 운영을 통해 치매 환자·가족의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주민들의 선제 치매 예방·관리와 정보공유, 소통의 기회가 됐다"며 "효과성이 검증된 만큼 내년에는 모든 어르신에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주민들이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처음 운영한 '100세 안심마을 경로당'에서 인지 증진 수업을 받고 있다. <나주시 제공>

농진청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함평군 우수사례 분야 '대상'



함평군이 지난 29일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ASTIS 시스템 데이터 연계 활용 경진대회' 우수 사례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ASTIS란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의 약자로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 가공해 고객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함평군은 앞으로 과학영농시설, 농산물가공센터, 영농지식공유, 영농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한 자료를 ASTIS로 가공·분석해 실시간으로 농업지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함평군농업기술센터 김영복 지도사는 'ASTIS 연계 미생물배양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무인안내기 주문, 관리대장 디지털화, ASTIS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사례 등을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1000세대 규모 LPG 배관망 구축

2026년까지...소닉에너지와 협약

담양군이 1000세대에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기 위해 210억 규모 투자협약을 맺었다.

담양군은 지난 29일 ㈜소닉에너지(대표 박기종)와 'LPG 배관망 구축사업'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LPG 배관망을 설치하면 연료 사용의 효율성·안전성을 높이고, 도시가스 공급 지역과 미공급 지역의 연료 비용 격차를 좁힐 수 있다.

배관망이 구축되면 LPG 용기나 등유를 이용할 때보다 약 30~50% 이상 저렴하게 LPG를 공급받

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담양군 측은 내다봤다.

LPG 배관망 구축은 지역 1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협약을 맺은 ㈜소닉에너지는 오는 2026년까지 210억원을 투자해 LPG 배관망을 구축한다.

담양군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군민들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담양군(군수 이병노·가운데)이 지난 29일 ㈜소닉에너지와 오는 2026년까지 1000세대에 LPG를 공급하는 배관망 구축사업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강진경찰서 임형봉 경감 경찰청 '베스트 팀장' 선발

강진경찰서 임형봉(58·사진) 경감이 최근 경찰청 주관 '49회 베스트 팀장'에 선발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임 경감은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계장으로 일하면서 오래 방치된 폐가로 인한 범죄 예방에 힘써왔다.

그는 공폐가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설치'를 위한 사무지원조례' 개정에 공로를 세웠다.

또 주민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베스트상'은 경찰청이 지난 2019년부터 일선 경찰조직 내 계장·팀장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 중심 문화정착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지방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상이다.

임 경감은 전남 22개 경찰서 가운데 이변에 유일하게 상을 받았다.

임형봉 경감은 "일선 경찰의 중간관리자는 내부 역량과 외부환경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치안을 구현하는 자리"라며 "남은 정년까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폐교 방치 강진 옛 성화대 캠퍼스, 문화콘텐츠 허브 탈바꿈

글로벌대학 선정 순천대 공동연구센터 문화 인재 육성

폐교돼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강진 소재 옛 성화대 캠퍼스가 문화콘텐츠 허브로 탈바꿈한다.

강진군 등에 따르면 글로벌대학에 선정돼 향후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순천대가 성화대 캠퍼스에 공동연구센터를 만들어 평생교육과 재직자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최근 무안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글로벌대학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알렸다.

특히 순천대는 성화대 캠퍼스를 공동연구센터로 삼아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인재 육성 등

글로벌컬대학교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화대학은 지난 1997년 개교 당시 320명으로 출발했다. 2007년 1236명까지 증원되다가 2012년 폐교돼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화대가 있는 성전면 인구는 개교 당시 약 4500명이었지만 현재는 2784명으로 40%가량 줄어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순천대의 운영 방향에 "과거에는 교육부가 재정 지원 사업을 할 때 선정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지만 글로벌대학 선정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칭은 전남도 행정부시자 역시 "전남도는 순천대에 직접 사업 1349억원, 연계 사업 36개에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9월 순천대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순천대 글로벌30 선정 및 성공적인 운영,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및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